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 📍 **스페셜리포트**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정책과 개선 방안
- 📍 **해외동향** 독일, 중소기업 전략의 기초는 ‘평가-지원-부담 완화’ (등 14건)
- 📍 **주요일정** ICGSE 2019 (이탈리아 로마, 2019.12.12.~13.) (등 6건)

목 차

I. 스페셜리포트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정책과 개선 방안	
요약	1
1. 서론	2
2. 중소기업 디지털화 현황과 문제점	3
3.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정책	9
4.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

II. 해외동향

〈미국〉

1. 미국,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EP) 프로그램 통해 매출 및 고용 증가	15
2. 미국, 국립과학재단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SBIR)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에 집중	16
3. 미국 중소기업청, ‘성장 액셀러레이터 기금 경진대회’ 통해 3백만 달러 지원	17
4. 미국 중소기업청,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18

〈영국〉

1. 영국, 과학자 및 혁신 중소기업에 1억 파운드 투자	19
---------------------------------	----

〈독일〉

1. 독일, 중소기업 66%가 향후 2년 내 디지털화 추진 예정	20
2. 독일, ‘18년 창조산업 스타트업 활동 부진	21



목 차

〈일본〉

- | | |
|--|----|
| 1. 일본, 중소기업 재편이 지방창생의 핵심 | 22 |
| 2.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필요 | 23 |
| 3. 일본, 후계자 난에 따른 도산 증가 추세 | 24 |
| 4. 일본, 제조 중소기업의 대학 연계 및 공설시(公設試) 활용 부족 | 25 |
| 5. 일본, 인력부족이 회사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 26 |
| 6. 일본, 스타트업과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 27 |

〈기타〉

1. 품질4.0(Quality4.0), 미래 공장에서의 중요성 불구하고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 … 28

III. 주요일정

1. Hustle Con (미국 캘리포니아, 2019.12.2.~3.) 29
 2. Growth Marketing Conference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9.12.10.~11.) ... 29
 3. FORTUNE MPW Next Gen 2019 (Laguna Niguel, CA, 2019.12.10.~11.) .. 29
 4. Disrupt Berlin 2019 (독일 베를린, 2019.12.11.~12.) 30
 5. SME WORLD FORUM MACAO 2019 (중국 Macao, 2019.12.11.~14.) · 30
 6. ICGSE 2019 (이탈리아 로마, 2019.12.12.~13.) 30

I

스페셜리포트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정책과 개선 방안

요약

- 프랑스는 2019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28개 회원국 중 15위에 그치는 등 기업 및 사회의 정보화 수준이 EU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 디지털 생태계, 공공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프랑스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디지털 성숙도의 불균형이 존재
 - '17년 9월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외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
 - '17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고객 경험 부문에서 프랑스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
 - 한편 중소기업들은 EU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문제도 존재
- '1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는 디지털산업전환정책 (Plan de transformation de l'industrie par le numérique)을 발표
 - 'France Num'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SMEs), 초소형기업(Very Small Enterprise, VSEs)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18년 9월에는 디지털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40%의 추가 감가상각 제도를 실시
-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공공지원정책은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이나 경제 디지털화의 산업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통적 중소기업이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
 - '16년 7월 국가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는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사업들이 그저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논리라고 지적
-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개선, △‘디지털화 포럼’ 개최, △지원정책의 가시성 제고, △디지털화에 따른 무형 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 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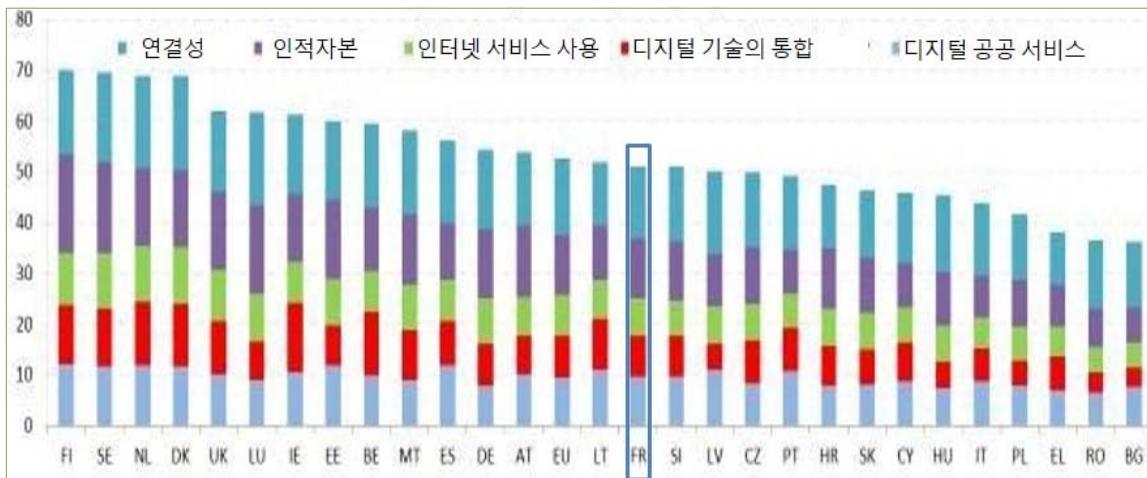
【원문】

- Par Mme Pascale GRUNY,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e la délégation aux entreprises (1) sur l'accompagnement de la transition numérique des PME : comment la France peut-elle rattraper son retard?, 2019.7

① 서론

- 프랑스는 2019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28개 회원국 중 15위에 그치는 등 기업 및 사회의 정보화 수준이 EU 평균에 못 미침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 디지털 생태계, 공공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1〉 디지털 경제사회지수(DESI) 2019



자료 :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 2019: Questions and Answers, 2019.6

- 이에 프랑스 상원 기업심의회(Délégation aux entreprises)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파스칼 그루니(Pascale Gruny) 공화당 의원이 위임을 받아 실시한 이 조사는 공청회 40여 회, 비교 연구를 위한 해외 출장(독일, 덴마크, 브뤼셀) 3회 등을 실시하였음
 - 기업심의회는 중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의 현실적 필요에 근거해 △초등학교부터 모든 프랑스인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해 디지털 문화를 촉진, △중소기업, 마이크로기업에 디지털 장비 투자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격려, 지원 개선, △이동통신 분야의 친중소기업 경쟁환경 보장과 초고속 인터넷의 지역 간 디지털 격차 감소, △민간 및 공공주체들 간 정기적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 생태계의 효율성 제고 등의 목표를 도출함
- 이러한 조사 결과와 중소기업-마이크로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이를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② 중소기업 디지털화 현황과 문제점

(1) 디지털화 수준

- EU는 매년 '디지털 유럽 진척 실태 보고서(Rapport sur l'état d'avancement de l'Europe numérique)'를 통해 회원국의 디지털화 진척 상황을 평가함
 - 평가는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를 통한 정량적 분석과 각국 정책에 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짐
 - (인터넷 연결) 유선 고속 인터넷, 모바일 고속 인터넷, 고속 인터넷 속도 및 가격
 - (인적 자본) 인터넷 사용, 기초 및 고급 디지털 역량
 - (인터넷 서비스 사용) 콘텐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온라인 거래 사용
 - (디지털 기술 통합) 기업의 디지털 및 온라인 상거래 전환
 - (디지털 공공 서비스) 온라인 행정
- 2019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프랑스는 28개 회원국 중 15위에 올라 '중간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음
 -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학위자 비율이 높아 기초 및 고급 디지털 역량 부문에서는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온라인 행정 부문에서는 9위로 평균 실적을 기록했고, 오픈 데이터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그러나 낮은 고속 및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때문에 인터넷 연결부문에서는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고,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통합 수준 역시 평균 이하로 평가되었으며,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평균 수준 정도에 그침
 - 온라인 거래(은행, 상거래)가 널리 이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콘텐츠 관련 인터넷 사용(뉴스, 음악, 동영상)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SNS)에서 나쁜 평가를 받음
- '17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디지털 GDP는 5.5%로 한국(10.1%), 영국(10%), 중국(9.2%) 혹은 미국(8%) 등 디지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디지털 관련 고용은 프랑스 전체 고용의 2.7~3.7%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했으며, 높은 기업가정신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의 수가 독일의 절반, 영국의 1/6에 불과함
 - EU집행위는 EU 일자리 중 90%가 간단한 디지털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중 39%가 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간단한 디지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2배 수준에 해당됨
- 맥킨지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디지털화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면 ‘25년 국부(國富)가 2,450억~3,90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에 적합하지 않은 법제를 개선(예: 보건분야 데이터 접근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또한 독립적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일자리 및 교육 수요와 공급의 만남을 유연화함으로써 일자리의 이동성과 비즈니스 창출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함

(2) 중소기업 디지털화의 문제점

- 디지털화는 중소기업-마이크로기업이 대기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임
- 디지털화는 중소기업 및 마이크로 기업이 지리적·물질적 제약을 뛰어넘어 매우 다양한 공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함
 - 디지털화로 인해 용이해진 재택근무, 노마드 생산방식, 경계가 없는 기업의 가시성 제고를 통해 지금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며 교류가 가능하게 됨
 - 전자상거래 분야 5인 이상 중소기업의 비율이 3년 만에 2배로 증가했는데(‘15년 12%에서 ’18년 25%), 이들 중 45%가 인구 20,000명 이하의 도시에 존재함
 -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인의 80%가 홈페이지가 물리적 매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는데, ’16년에는 이 비율이 60%에 불과했음
- 그러나 프랑스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디지털 성숙도의 불균형이 크다는 문제가 존재함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낮은 수준이나 중견기업은 디지털이라는 전략적 전환이 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격차는 더욱 우려스러운 수준임
 - 10명 중 7명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결제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8개 중 1개만이 온라인 판매 솔루션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17년 9월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설문조사¹⁾에 따르면 기업 외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45%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73%가 디지털화가 거의 진척되지 않았고, 63%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60%가 판매나 고객관계관리(CRM)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음
 - 동 조사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온라인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디지털 툴을 도입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근로자 250명 이상) 절반이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8개 중 1개만이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대기업 3개 중 1개가 일부 디지털 툴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 10명~49명 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10개 중 1개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음
- ‘17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고객 경험 부문에서 프랑스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함
 - 마이크로기업의 63%만이 인터넷 사이트를 갖고 있었으며(독일은 91%), 물류공급망의 자동화율은 중소기업이 25%(독일 41%), 마이크로기업이 11%(독일 21%)로 나타남
 - 마이크로기업인 및 중소기업인 응답자의 1/3이 디지털 툴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원하지 않았으며, ‘25년까지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함
 - 동 보고서는 프랑스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 (기업 내 조직적 경직성) 프랑스는 스웨덴에 비해 절차의 디지털화가 3배 더 조직 내 반감을 불러일으킴
 - (디지털 역량 부족) 프랑스는 인구 1인당 개발자 수가 스웨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재정 여력 부족) 프랑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유럽 평균보다 10%p 낮음

1) « Histoire d'incompréhension : les dirigeants de PME et ETI face au digital », 2017.09.
1,814명의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 한편 중소기업들은 EU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리버 카딕(Oliver Cadic) 의원의 보고서²⁾에서는 중소기업에게 GDPR 규정의 복잡성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간과 인력을 강조하며 공포 마케팅을 하는 서비스 업체들의 실태를 지적하고 있음
-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18년 5월 개인정보보호청(CNIL)은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처리 모델을 제시하였음
 - '18년 5월 파리-일드 프랑스 상공회의소는 GDPR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절차를 공유하는 포럼(Forum Europe 2018)을 개최함
 - '18년 4월에 개인정보보호청과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은 GDPR 실용 가이드를 발표하고, 사이트에 무료 지원모듈 및 온라인공개수업을 개발할 예정임

□ 중소기업의 낮은 사이버보안 인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PwC의 '17년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문제로 인한 프랑스 기업의 피해액은 평균 225만 유로로 전년도 대비 50% 증가함
- '19년 1월의 다른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컴퓨터 공격을 받았지만 36%의 기업만이 최소 6개월마다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있음
 -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안티스팸 솔루션을 사용하는 비율은 컴퓨터에는 39%, 전사 컴퓨터 네트워크에는 30%로 낮은 수준임
- 사이버보안은 디지털화된 기업의 문화 및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모든 디지털 사업에 포함되고 사이버보안 교육이 모든 벤류체인에 걸쳐 이뤄져야 함

(3) 디지털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화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고용 감소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디지털 혁명으로 사라진 일자리 1개가 2.6개의 새로운 일자리로 보충된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의 보급으로 '95년~'10년 사이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나 1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추산됨
 - 예를 들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배달원이라는 직업은 시내나 근교 대단지 등에서

2) 상원 기업위원회 n° 405 (2017-2018)에 게재된 Olivier CADIC의 조사 보고서, 2018.04.05

상품이나 서비스 배송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음

- 총리실 산하 싱크탱크 프랑스 스트라티지(France stratégie)는 ‘13년 자동화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를 310만 개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15%에 불과하고 자동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의 수는 910만 개로 훨씬 많았음³⁾
- 디지털화가 일자리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의 파괴가 아니라 주로 저숙련 일자리의 큰 변화이므로 최소한의 기간에 최적의 조건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완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을 공공전략의 목표로 삼아야 함
 - 그러나 이런 각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대를 예상했던 많은 연구와 학자들의 예상을 깨고 부차적 현상으로 남는 등 디지털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신기술이 근로 환경을 변화시키면서도 실질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면 노사 측의 대화를 통해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또한 일자리와 역량 예측 관리의 내용과 제도 역시 그에 맞게 개발해야 함
- 일자리 파괴보다 더 우려스러운 이슈는 디지털 인력 부족으로, ‘20년까지 8만 개 IT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경제부 산하 기업총국(DGE)에 따르면, ‘17년 디지털 전문 인력을 고용한 제조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19%에 그쳤음
 - 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고작 16%에 불과했으며 85%가 근로자 250명 이상 기업들이었음
 -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6년 채용을 시도했던 기업들 중 중소기업은 35%, 대기업은 46%가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음
 - 디지털 기술 전문가 수요는 지난 10년간 매년 4%씩 증가했으나 ‘17년 8만개의 IT일자리가 적합한 인재가 없어 공석으로 남았음
- ‘18년 6월 고등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따르면 1,300만 명의 프랑스인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중 670만 명이 한번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L'effet de l'automatisation sur l'emploi : ce qu'on sait et ce qu'on ignore », Nicolas Le Ru, n° 49, 2016.07

- 디지털화가 필수불가결하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문맹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해야 함
- 근로자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음
 - '17년 1월 고용지도위원회(Conseil d'orientation pour l'emploi, COE)에 따르면 13%의 경제주체(330만 명)가 현재의 일자리 유지나 새로운 구직활동을 어렵게 하는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보다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일자리에 요구되는 수준을 감안할 때 30%(760만 명)는 디지털 역량을 더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수준임
 -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최소한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
 - 또한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팀워크, EQ 등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짐
- '18~'22년 15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는 역량투자계획(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은 백만 명의 청년 및 백만 명의 저숙련 구직자를 교육하고 직업교육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8년 4월 4일 발표된 동 계획의 디지털 부분은 디지털 일자리에 대한 1만 개의 교육을 목표로 하며, 바칼로레아 및 바칼로레아 이하의 청년 및 구직자가 디지털 분야의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그랑제꼴(Grande Ecole du Numérique)과 구직센터 등이 참여 기업과 협력해 교육을 마친 인턴들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며, 시간당 8유로의 교육비용(연간 최대 800시간)과 구직자 급여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됨
 - '18년 12월 6일까지 347개의 신규 교육이 디지털 그랑제꼴 인증을 받았으며, 이전에 인증을 받은 410개 교육까지 더하면 총 750개의 교육이 제공되었음
- 기업도 정규 근로자부터 계약직, 비상근직, 하청직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청년 및 경제주체의 직업 교육 이니셔티브를 확대하는 추세임
 - 일부 기업들은 직원을 다른 기업(예를 들면 같은 클러스터 내 기업)에 파견해 그들의 역량 강화를 돋구나 'FabLabs'와 같이 지식이나 경험 공유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e-러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19년 5월 엘리제궁에서 열린 제2회 'Tech for Good'에서 IBM, Orange, BNP

Paribas는 프랑스 교육청년부와 공동으로 고속련 일학습병행제(P-TECH)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음

- 동 프로그램은 모든 계층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을 위해 평등하게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개인 후원, 면접 시뮬레이션, 기업 방문, 교육 아플리에 및 인턴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함
- '19년 말까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 13개국 최소 200개 기관에서 동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12만 5천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임

③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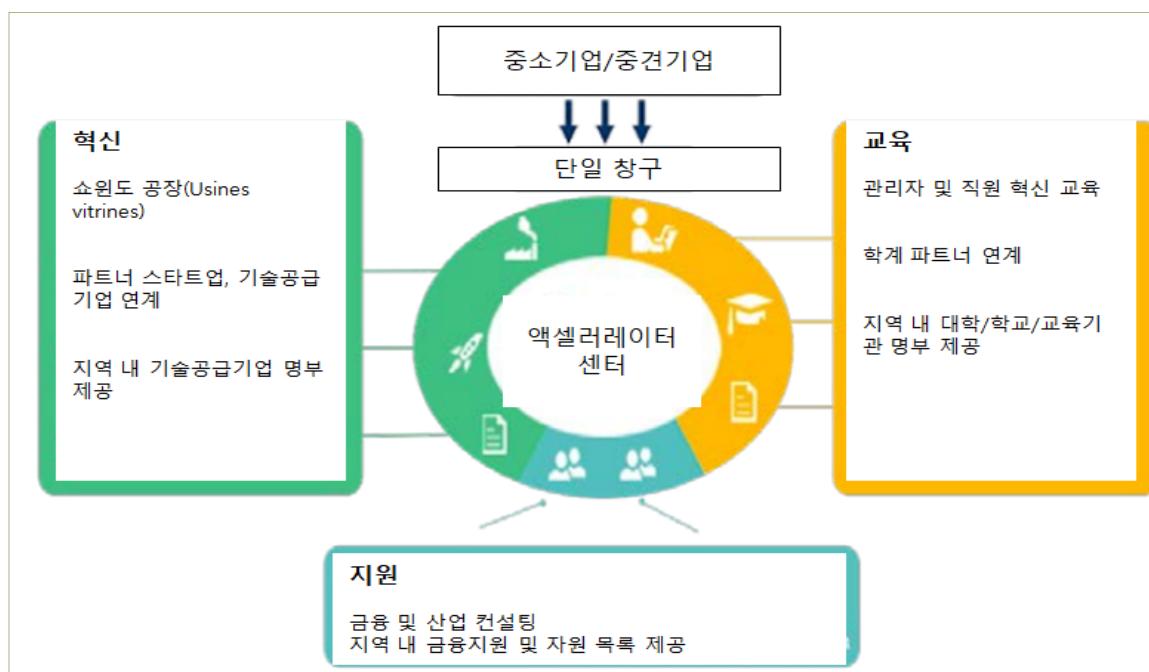
- 프랑스 상공회의소(CCI) 네트워크는 파리-일드 프랑스 CCI가 개발한 'Les Digiteur' 프로그램 등 기업인 대상 인식 제고,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8년 가이드에 따르면 수백 가지의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France Num'은 중소기업 및 마이크로기업의 디지털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으로 CCI의 'les Digiteurs'에서 영감을 얻었음
 - 기업인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초의 B2B 디지털 솔루션 마켓플레이스 사이트인 'CCI Store'를 개설하였음
 - 황폐화된 도심의 상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도 있는데, 상인들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공유 웹 플랫폼 achatville.com은 CCI 명부 등록에서부터 통합 마케팅 툴을 보유한 사이트 생성, 공유 마켓플레이스 상의 온라인 판매활동 개발까지 지원해줌
 - 상원은 이러한 목적에서 '18년 6월 소매 상업의 디지털 현대화 및 상인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 중소기업연맹(Confédération des PME, CPME)은 '17년 7월부터 온라인에서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무료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EvalNumPME'를 제공하고 있음
 - 동 기관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에 '중소기업, 디지털과 함께 성공하라!(PME, réussir avec le numérique!)'라는 트로피를 수여함
 - 건설부문 디지털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KROQI라는 플랫폼은 건설 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히 중소기업 및 마이크로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빌딩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BIM)의 사용에 더욱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06년 창립된 'Cap digital'은 R&D 협업을 지원하는 협회로 파리 인근 기업들의 디지털화 활성화(인큐베이터, 싱크탱크, 행사)에 기여하고 있음
 - 프랑스인터넷명명협회(Afnic)도 www.reussiravecleweb.fr라는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성숙도 평가 및 맞춤형 계획 구상 서비스를 제공함
- 프랑스 정부는 34개 산업의 로봇화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13년 프랑스 신산업 정책(nouvelle France industrielle)을 마련, 프랑스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있음
 - 미래 공장(usine du futur)을 건설하기 위해 프랑스의 대표적 기업에 시범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000~3,000개에 지자체에서 주도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16년 프랑스의 산업용 멀티태스킹 로봇 수는 근로자 1만 명당 132개로 독일의 309개를 훨씬 하회함
 - '17년 독일에 신규로 설치된 로봇 수가 21,404개에 달했던 반면 프랑스는 4,897개에 그쳤음
 - '15년에는 34개 신산업 분야를 9개 부문으로 재편성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함
 - 9개 분야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ics), △스마트 오브젝트(Smart Objects), △디지털 트러스트(Digital Trust), △스마트 식품(Smart Food), △뉴리소스(New Resources),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 △친환경 이동수단(Ecological Mobility), △미래 교통(Future Transportation), △미래 의료(Future Medicine) 등으로 구성됨
 - '16년 1월에는 9개 분야의 디지털 산업 전환 전략과 지원 정책 및 과제 등이 포함된 '미래 산업(Industrie du futur)' 정책 로드맵을 발표함
 - ①최신 기술 개발, ②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③인력 재교육, ④미래 산업 홍보, ⑤국제 협력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 △지역 차원의 미래 산업 전환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함
 - 관련 학계, 기관, 산업체를 연합한 미래산업연합(Alliance pour l'industrie du futur)을 중심으로 550명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미래산업화를 지원함

- '18년 9월 20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는 디지털 산업전환정책(Plan de transformation de l'industrie par le numérique)을 발표 하였음
 - 몽테뉴 연구소의 '18년 보고서를 토대로 미래산업 액셀러레이터 센터(centre d'accélération de l'Industrie du futur)를 신설해 지역 단위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함
 - 20여개의 액셀러레이터 센터를 통해 1,800개 제조 중견기업 및 50,000개 제조 및 건설 중소기업이 지역 내 대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등의 혁신 생태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제공하고, △혁신, △교육,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함

〈그림 2〉 미래산업 액셀러레이터 센터 지원 내용



출처 : 몽테뉴 연구소, 2018.9.26.

- 'France Num'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SMEs), 초소형기업(Very Small Enterprise, VSEs)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임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초소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제공함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툴과 자문, △디지털 전환 전문가 확보 지원, △지역의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와 교육 기회, △중소·초소형 기업 맞춤형 자금 지원 등

- 동 이니셔티브는 국가와 지역을 연계해 중소기업-마이크로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900명의 활동가(activateur) 네트워크를 구축함
 - 그 중 500명의 활동가는 전문가-회계사로 3년간 중소기업 및 마이크로기업에 100만 건의 디지털 진단을 실시할 예정임
 - 이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활동가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 및 마이크로기업과 가까이 있고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디지털화 지원에 적합한 전문가-회계사들을 주요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음
 - 이는 마이크로기업 혹은 자영업자가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보다는 평소에 익숙한 상대를 선호할 것을 감안하여 구상한 제도임
- ‘18년 9월에는 디지털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40%의 추가 감가상각을 해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음
- 2년간 로봇 자동화 및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설비, 디지털 설계 및 생산 관리 시스템, 커넥티드 센서 등과 같은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을 최대 11%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총 5억 유로 중 절반은 감가상각제도에 나머지 절반은 지원금으로 모든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이 디지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할 방침임
 - 또한 연구개발 세액공제(Crédit d'impôt recherche, CIR)나 혁신 세액공제(Crédit d'impôt innovation)와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음
 -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규 자산
 - 경영진이 ‘18년 9월 20일 이후 생산을 최종 결정해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한 자산
 - ‘19년이나 ’20년에 선금을 최소 10% 지불하고 주문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취득이 이루어진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신규 자산
-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영역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디지털화 관련 공공정책 구상 및 시행에 힘쓰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있음

〈표 1〉 디지털 전환 지원 관련 기관 및 협회

기관명	주요 내용
디지털국 (Agence du numér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년 설립된 인터넷사용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기관으로 '15년 설립되어 '18년부터 프랑스 국토연대국(ANCT)에 흡수 -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초고속 인터넷(France très haut débit)의 시행과 주관 • 디지털구역(Quartiers numérique) 사업의 시행과 주관 • 디지털사회(Société numérique)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툴 보급 및 사용 촉진
국가디지털위원회 (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장관 산하 자문 위원회로 '11년 4월 설립 • 사회, 경제, 기관, 공공정책 및 지역의 디지털 전환의 비전과 이슈를 고찰
국가디지털산업위원회 (Conseil national de l'industrie numér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설립된 프랑스 생산 시설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관 -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에 의한 각 분야의 가치사를 변화 • 제조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 디지털화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업무 • 제조업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표준 및 규제 이슈 연구를 담당
프랑스인터넷명명협회 (Association française pour le nommage internet en coopération, AF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INRIA)가 설립 • .fr 도메인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마이크로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

④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공공지원정책은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이나 경제 디지털화의 산업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통적 중소기업이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음
 - 중앙정부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지역 산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지원정책 구성 및 시행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음
 - 그러나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데다 '22년까지 3만개의 제조 중소기업을 현대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다른 산업의 중소기업과 전통적 중소기업들이 소외됨'
- '16년 7월 국가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는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사업들이 그저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논리라고 지적함

- (중소기업인 지원) 독일의 중소기업4.0(Mittelstand 4.0)처럼 기업인들이 디지털화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들에 가서 새로운 디지털 생산방식 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디지털 성숙도 자가진단에서부터 필요한 지원 정책까지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언함
- (무형투자 재정지원) 디지털화 초기의 평균 투자액이 5,000~25,000 유로인데 중소기업, 그리고 마이크로기업은 거의 유일한 재정지원수단인 은행 대출에 더욱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반면, 공공지원책은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정책이 거의 없음

-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개선, △‘디지털화 포럼’ 개최, △지원정책의 가시성 제고, △디지털화에 따른 무형 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 등이 필요함
 -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개선)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현황을 점검, 니즈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개선하고, 디지털화 성공 스토리를 홍보함으로써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함
 - ('디지털화 포럼' 개최) 디지털화 관련 민간, 공공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지원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럼을 조직하고 활성화해야 함
 - (지원정책의 접근성 제고)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책이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 지원금 지급기준을 통일해 하나의 ‘디지털 수표’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협용해야 함
 - '17년 론칭한 기업 지원정책 종합안내 사이트(aide-entreprises.fr)가 대표적인 사례임
 - (디지털화에 따른 무형 투자 촉진) 디지털화에 필요한 경영진 및 근로자들의 인건비, 교육, 컨설팅 비용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기업인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러한 무형 자산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사이트(cap-immateriel.fr)등을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해야 함
 - 중소기업의 난제는 고정자산이 부재한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때 무형 투자가 은행 담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임

II 해외동향



① 미국,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EP) 프로그램 통해 매출 및 고용 증가

- 미국은 '89년부터 중소 제조업체(SMMs)의 기술 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
 - MEP 센터는 중소 제조업체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며 제품 혁신을 촉진
 - MEP 센터의 기금은 △연방 정부 지원, △주정부·지자체 민간 비영리 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조성
 - 현재 MEP 활동은 혁신 및 성장 전략, 사이버 보안, 상업화, 린 생산, 프로세스 개선, 인력 훈련, 공급망 최적화 및 수출에 중점
- 2018회계연도 미국 국립기술표준연구소(NIST) MEP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MEP 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기업의 신규 및 유지 판매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26.2% 증가
 - 비용 및 투자 절감액은 17억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하였고, 신규 고객 투자는 40억 달러로 14.3% 증가했으며, 고용 창출과 유지는 12만 1천개로 20.5% 증가
- MEP가 시작된 이래 2018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102,443개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매출 1,273억 달러, 비용 절감액 205억 달러를 달성
 - 또한 1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2018회계연도에 1달러의 연방 투자에 대해 MEP는 약 31달러의 신규 고객 투자, 29.5달러의 신규 판매를 창출
 - NIST는 MEP가 연방 투자 1,065달러마다 1개의 제조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한다고 주장
 - W.E. 업존 고용연구소(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가 '19년에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MEP 센터의 서비스와 활동이 미국 경제에 약 23만 7천개의 고용과 249억 달러의 GDP를 추가했다고 추정

▶ 자료 : 미국,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EP) 프로그램 실시 현황(The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Program), CRS, 2019.9

② 미국, 국립과학재단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SBIR)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에 집중

-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프로그램은 연방기관이 외부 R&D를 지원할 경우 R&D 지원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프로그램
 - 기관 외부에서 시행되는 R&D 지원을 위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각 연방 기관은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R&D 예산으로 최소 비율(3.2%) 이상을 할당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2018회계연도 SBIR 프로그램 예산은 1억 9,700만 달러로 SBIR 총 예산의 6.3%를 차지
 -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기관은 국방부(DoD)로 SBIR 총 예산의 42.3%에 해당하는 13억 1,400만 달러
 - NSF의 SBIR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집중
 - '19년에 자금을 지원한 회사의 56%는 2년 미만의 회사이고, 이들 기업의 74%는 고용자가 0~3명이며, 96%는 이전에 2단계 SBIR/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47%는 처음으로 NSF에 지원을 신청
- NSF의 SBIR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
 - 이들은 프로그램 디렉터들과 기업 간 관계, NSF 프로그램의 주제 유연성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 응답자는 NSF 프로그램을 관료주의적인 것과 반대되는 성과주의적 시스템(meritocratic system)이라고 표현
- NSF의 SBIR 프로그램은 '12년 이후 3,000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14년 이후 지원받은 기업들은 65억 달러의 민간투자 유치, 87건의 투자회수(exit)를 달성
 - 응답자의 80%는 2단계가 자신들의 제품 및 서비스 상업화를 가속시켰고, 70%는 SBIR 지원이 없었으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응답

▶ 자료 :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SBIR) 프로그램 성과(Becoming America's Seed Fund:Why NSF's SBIR Program Should Be a Model for the Rest of Government), ITIF, 2019.9

③ 미국 중소기업청, ‘성장 액셀러레이터 기금 경진대회’ 통해 3백만 달러 지원

- 미국 중소기업청은 ‘성장 액셀러레이터 기금 경진대회(SBA’s Growth Accelerator Fund Competition)를 통해 혁신적이며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를 선정해 지원
 - 올해 5회째를 맞는 이 경진대회는 가장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가 대상이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5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
 - ‘19년 경진대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SBIR)’과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 지원 가능성이 있는 하이테크 기업가와 협력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에 중점
- ‘성장 액셀러레이터 기금 경진대회’는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해 기업가를 집중 지원
 - 올해 수상자들은 경진 대회 관련 작업의 60% 이상을 다음과 같은 그룹의 기업가에게 집중
 - 여성,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 SBIR/STTR 수상자가 적은 주 또는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 살고 있거나 기업이 그 지역에 소재하고 운영되는 기업가
 - SBA는 이러한 기업가 그룹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의 노력에 중점을 둘어서 미래 SBIR/STTR 지원자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관련 혁신 경로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
- 경진대회 지원자들은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데크와 조직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 등을 설명하는 2분 분량의 비디오(선택 사항)를 제출
 - 비디오에는 조직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 외에 목표 기업가 그룹과의 작업 경험, 제안된 계획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주요 지표 등이 포함
 - 기업가, 투자, 스타트업, 경제 개발 및 학술적 기반을 가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이 지원 내용에 대해 평가

▶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 ‘성장 액셀러레이터 기금 경진대회’ 통해 3백만 달러 지원(SBA Announces \$3 Million for 60 Growth Accelerator Fund Competition Recipients Supporting Startups and STEM Focused Entrepreneurs), SBA, 2019.9

④ 미국 중소기업청,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행
 - 중소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출보증 및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연방정부 조달 계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계약 프로그램, △기업, 주택소유자, 임차인의 자연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대출해 주는 자연재해 대출 프로그램, △기업 설립과 확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원 훈련 프로그램
- (기업가 개발 프로그램, Entrepreneurial Development Programs)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경영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
 - 2019회계연도 각 프로그램별 예산은 SBDCs 1억 3,100만 달러, 기술지원 소액대출 프로그램 3,100만 달러, WBCs 1,850만 달러, SCORE 1,170만 달러, PRIME 5백만 달러, 상이제대군인 프로그램 1,270만 달러, NAO 2백만 달러, 기업가개발 이니셔티브 5백만 달러, 기업가정신교육 이니셔티브 350만 달러
- (자본 접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대출 또는 투자지원 방식으로 시행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대출 지원의 경우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 등을 통한 보증서부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7(a) 대출보증, 504/CDC 대출보증, 소액대출 등
 - 7(a)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2019회계연도에 총 51,907건, 총액 232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으며, 504/CDC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2019회계연도에 6,099건, 총 50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
- (계약 프로그램) 중소기업이 연방계약 및 하청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 8(a)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소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회계연도에 295억 달러의 계약을 지원
 - HUBZone 프로그램은 저개발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회계연도에 총 98억 달러를 제공

▶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Small Business Administration:A Primer on Programs and Funding), CRS, 2019.10

⑤ 영국, 과학자 및 혁신 중소기업에 1억 파운드 투자

- 영국은 지난 9월, 9천 8백만 파운드를 투자해 연구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과학, 혁신 및 미래 산업에서 방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
 - 이중 7천 8백만 파운드는 정부의 미래 지도자 펠로우십 제도를 통해 78명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에게 투자될 예정
 - 나머지 2천만 파운드는 전국의 20개 대학이 새로운 대학창업존(University Enterprise Zones, UEZs)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될 예정
 - 이를 통해 인공지능, 청정성장, 스마트 에너지 및 농산물과 같은 선구적인 산업의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
- 1차 미래 지도자 펠로우십 제도의 수상자는 올해 초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다수 프로젝트가 진행 중
 - 미래 지도자 펠로우십은 유연한 경력 경로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재능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
 -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알츠하이머 병 치료에서부터 사고 현장에 응급 서비스가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등
- 20개 대학에 대학창업존 개발을 위해 할당되는 2천만 파운드는 영국연구혁신청(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의 위원회 중 하나인 리서치 잉글랜드(Research England)를 통해 집행될 예정
 - 대학창업존은 선구적인 첨단 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제공
 - 이 제도는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비즈니스 모델화를 추진함으로써 학계와 기업가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이번 투자는 영국 정부가 '27년까지 R&D에 GDP의 최소 2.4%를 투자하겠다는 공약과 올 가을에 동 목표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결과

▶ 자료 : 영국, 과학자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억 파운드 투자(Science superstars and small businesses could bring the next big innovations to market with £100 million boost), BEIS, 2019.9

⑥ 독일, 중소기업 66%가 향후 2년 내 디지털화 추진 예정

- KfW는 '19년 다양한 규모와 분야 그리고 지역의 약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에 관한 기업의 관심과 상황을 조사
 - 동 설문조사는 올해 18번째로 진행되었으며, '18년 12월 중순부터 '19년 3월 중순까지 진행
-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업의 디지털화 진행이 최근 2년 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
 - 기업의 3분의2에 해당되는 약 66%의 기업은 향후 2년 이내 디지털화를 실행한다는 목표를 설정
 -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기업의 수는 전년대비 7% 증가한 반면, 디지털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기업의 수는 5% 감소
 -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
 - 연 매출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의 91%가 디지털화 실행 의향이 있으며, 81%는 이미 진행 중이라 답변
 - 연매출 1백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 중 약 38.8%는 디지털화를 계획하고 있고 28%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고려중이라 답변
- 기업은 디지털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하는 기업의 수도 전년대비 증가
 - 디지털화 장애 요소를 인지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전년 21%에서 동년 12%로 상당수 감소
 - '17년 설문조사에서 기업이 지적한 디지털화 장애 요소가 현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대표적인 문제는 정보의 보호 과제, 기업의 IT 능력과 인력난, 기업과 조직에서의 적용, 기존 IT 시스템 변경의 어려움, 부족한 인터넷망 등

▶ 자료 : 독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추진 현황(Unternehmensbefragung 2019 : Immer mehr Unternehmen gehen Digitalisierungsvorhaben an, auch die Hemmnisse werden stärker wahrgenommen), KfW, 2019.9

⑦ 독일, '18년 창조산업 스타트업 활동 부진

- 창조기업 창업가 수는 '09년 저점을 기록했다가 '13년 회복된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이전 저점 수준까지 감소
 - 창조산업* 스타트업 창업가 수 비중은 '09년 11%에서 '18년에는 18%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창업활동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 독일의 스타트업 활동은 지난 15년 동안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그 결과 창조기업 창업가 수도 '03년 17만 8천명에서 '18년 9만 8천명으로 감소
- *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음악, 영화, 라디오, 예술, 도서, 출판, 디자인, 마케팅, 건축,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소프트웨어/게임 분야를 의미
- 창조산업의 남성 스타트업 창업가 수가 급격하게 감소
 - 남성 스타트업 창업가 수는 '03년 13만 5천명에서 '08년 4만 3천명으로 감소했으며, '18년에는 6만명까지 하락
 - '08년 남성 창업가 수가 급감한 이후 남성과 여성 창업가 수 추이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남성 창업가 수의 변동폭이 보다 큰 모습
- 분야별로 보면 소프트웨어/게임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가 비중이 크게 감소
 - '15~'18년 분야별 스타트업 창업가 비중을 보면 디자인이 25%로 가장 크고, 광고 14%, 소프트웨어/게임과 도서 모두 11%의 비중을 차지
 - 반면 '03~'06년에는 소프트웨어/게임이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소프트웨어/게임은 남성 창업가가 지배적인데 남성 스타트업의 급격한 감소가 분야별 비중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창조산업의 스타트업 창업가는 다른 산업과 상당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
 - 창조산업의 경우 단독 기업가가 전체 스타트업보다 더 지배적이며, 자가경영 전문가 비중도 전체에 비해 2배
 - 소재지 이외의 시장과 기업 고객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제공하는 제품/서비스는 디지털화 되었으며, 인터넷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인 경우가 다수

▶ 자료 : 독일, 2018년 창조산업의 스타트업 활동 부진(Just under 100,000 new businesses were started in the creative industries in 2018), KfW, 2019.10

⑧ 일본, 중소기업 재편이 지방창생의 핵심

- 국가 정책으로 ‘15년 시작된 지방창생은 ’19년도에 1기가 끝나고 ‘20년 2기가 시작되는데 2기 목표 역시 지방의 인구유지를 위한 지역의 안정된 고용 확보·창출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
- 지방창생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역고용을 첫 번째 기본목표로 설정
 - 중소기업 종사자 구성비가 큰 지역일수록 20~24세 취업인구의 전입 초과율이 작아지는 상황
 - 즉 중소기업 종사자 구성비와 전입 초과율의 상관계수는 -0.86으로, 동 구성비가 약 75%를 상회하면 취업인구는 순유출
 - 이 같이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중심 기업이 중소기업이 될수록 20~24세의 취업인구 유출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는 취업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선택은 지역보다는 대기업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
- 인구유출에 직면한 지역에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의 인력부족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한 인력부족에 직면해 있어 정부와 많은 지역들은 산관학은 물론 금융부문이 협력하며 중소기업을 지원 중
 - 지원 내용은 비즈니스 매칭, 해외진출 지원, 판로확대 지원, 상품·서비스 개발지원, 기업재생, 금리 우대 등 매우 다양하고 최근에는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해 사업승계도 활발하게 지원
 -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내용이나 프로세스가 제각각인데다 중소기업의 다양성도 커서 표준화가 쉽지 않아 지원의 효율성 향상은 한계에 직면
-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부족이나 사업승계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중소기업 지원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수로,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보다는 합병 등 재편을 통한 기업규모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창생의 근간에는 인구감소 문제가 있으며 취업기(20~24세)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자료 : 일본, 지역 중소기업 재편이 지방창생의 핵심(人口移動と企業規模 ~～中小企業の再編が地方創生の鍵～), 大和總研, 2019.10

9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필요

- 일본 전기업(電氣業)과 관련한 기업 동향을 보면, 기업의 수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급증
- ‘17년도 기준 전기업 전체 법인기업은 7,338개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자본금 1억 엔 미만)은 7,067개, 대기업은 271개
 - 그러나 ‘10년도 전기업 전체 법인기업이 337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206개 대기업은 131개에 불과했을 정도로 그 사이 기업 수는 급증
- 전 기업 매출액은 ‘10년도 17조 8,830억 엔에서 ’17년도는 25조 8,940억 엔으로 증가
 -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전기업의 매출은 604억 엔에서 9,455억 엔으로 대기업은 17조 8,226억 엔에서 24조 9,485억 엔으로 증가
 - 중소기업 전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10년도 -1.15%에서 ’12년도는 14.21%로 단숨에 두 자리 수 이익률을 기록하게 됐고 이후에도 ‘14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리 수 이익률을 유지
 - 이는 특히 중소기업 전기업이 FIT제도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하며, FIT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 재생에너지를 산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중심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중소수력 등과 같이 발전을 하는 전기업(電氣業)이지만 이 밖에 열을 이용한 사업도 있고 주변사업으로는 발전설비 제조부터 설치, 건설, 유지관리, 매전(賣電) 등의 사업이 존재
 - 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산업, 주변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사업 가능성을 생각하면 중소기업의 강점 활용 및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 활용 등이 가능
 - 중소기업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시점에서는 재생에너지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 획득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지역사회에서 성장했다는 시점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은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담당 주체로 적합

▶ 자료 : 일본,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가능성(再生可能エネルギー分野における中小企業の可能性), 商工総合研究所, 2019.9

⑩ 일본, 후계자 난에 따른 도산 증가 추세

-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21년까지 5년간을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 집중기간으로 설정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18년 10월 ‘전국 사업승계 추진회의’를 개최했으며 ‘19년 들어서도 각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후계자가 없는 기업들은 경영자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망 등을 계기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도산에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
- 실제로 ‘19년 1~9월 후계자 부재로 사업지속이 어렵다는 점 등을 요인으로 한 도산 (개인사업주 포함, 부채 1,000만 엔 이상, 법적정리) 즉 ‘후계자난 도산’은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한 325건 발생
 - 후계자난으로 인한 도산 건수는 2년 연속 전년동기 실적을 상회
 - 특히 325건은 조사를 시작한 ‘13년 1월 이후 1~9월 누적기록으로는 사상최다 건수로, 이는 연간 최다였던 ’13년 411건을 간신히 수 있는 속도
 - ‘19년 1~9월 누적 도산건수 전체(6,136건)가 전년동기 실적을 2.6% 상회하고 있는데 후계자난 도산 증가율(12.8%)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
- 부채규모별 건수를 보면 ‘19년 1~9월(누적)은 부채 ‘1억 엔 미만’이 2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했으며 전체 부채규모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
 - 경영자 개인에게 경영 노하우나 거래처, 인맥 등을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경영자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망 등을 계기로 실적부진에 빠지고 도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
 - 기업의 업력(業歴)을 기준으로 한 후계자난 도산건수를 보면 ‘19년 1~9월 누적치는 업력 ‘30년 이상’이 166건(구성비 51.1%)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원활한 사업승계를 목표로 한 시책들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자의 고령화나 후계자 부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후계자 난으로 인한 도산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자료 : 일본의 후계자난에 따른 도산 동향 조사 결과(後継者難倒産、前年同期比 12.8%増), 帝国データバンク, 2019.10

① 일본, 제조 중소기업의 대학 연계 및 공설시(公設試) 활용 부족

- 일본 경제산업성 추부(中部)경제산업국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책정한 특정연구개발계획을 인증하고 ‘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 지원사업’ 등 해당계획 수행에 관한 지원조치를 실시
 - 올해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업화 지원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대학이나 공설시 (公設試)등 기술지원이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
- 연구개발 실시 기업의 대학·공설시 활용과 관련해 ‘대학에 무엇을 상담해야 좋을지 잘 모른다’, ‘대학과의 만남의 장이 없다’라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다수
 - ‘대학에 무엇을 상담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문제는 지원기관이 기업이 원하는 지원 니즈를 파악해 대학이나 공설시와 상담할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외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또한 ‘대학과의 만남의 장이 없다’는 문제는 기업과 대학의 접점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지원기관을 비롯한 외부기관이 대학과 기업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
- 대학과 기업 간 산학연계 체제, 즉 대학이 기술지원에 나서거나 공동연구개발사업 체제를 구축할 때는 사업의 목적을 감안한 테마나 목표 설정이 중요
 - 그에 대한 실시수단, 역할분담 등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참여할 대학과 기업이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
 - 대학과 기업이 연계체제를 구축하더라도 각각의 지향점에 다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청취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는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연구 성과에 대해 대학은 연구개발의 정밀도(top data)를 추구하는 반면 기업은 연구자체의 정밀도보다 산업화에 도움이 될 만큼의 정밀도를 추구
 - 연구개발의 속도감·시간감각의 경우, 대학은 장기적인 개발도 시야에 두는 반면 기업,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과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기도 하며 사업화에 대한 의식(예상되는 시장규모) 역시 상이

▶ 자료 : 일본,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성과(平成30年度 中部地域ものづくり中小企業の事業化支援事業成果報告書), 經濟產業省, 2019.10

② 일본, 인력부족이 회사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9월 27일 ‘인력부족 하에서의 근무방식을 둘러싼 과제’란 주제로, 2019년판 노동경제백서를 발표
 - ‘일하기 좋은 환경’과 ‘일하는 보람’이란 관점으로 인력부족 상황에서의 근무방식을 분석하고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제언
- 인력부족이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기업은 전체의 70%를 넘었으며 대부분은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 인력부족이 직장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이 노사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노동자 쪽이 기업보다 높아 노사간 인식에 차이가 존재
 - 특히 ‘종업원의 일하는 보람이나 의욕 저하’는 노사 간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바빠지거나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보람이나 의욕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 정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용관리 노력은 ‘직장의 원활한 인간관계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유급휴가 취득 촉진’, ‘근무시간 단축 및 근무방식 유연화’ 등의 순
 - ‘15~34세’ ‘35~44세’ 여성은 ‘업무와 육아의 양립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연령이 높아지면 ‘업무와 간병의 양립지원’, ‘업무와 질병치료와의 양립지원’ 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
 - 종업원 100인 이하 기업의 정규직은 100인 이상 기업보다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느끼고, 3년 전에 비해 이직률이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도 상승 추세
- ‘일하는 보람’에 대해서는 ‘활력’, ‘열의’, ‘몰두’란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워크 인게이지먼트 (Work Engagement)란 지표를 이용
 - 이들 3가지 요소를 추출해 점수화시킨 결과, 정사원의 3가지 요소는 평균 3.42였으며 ‘열의’가 3.92로 높은 반면 ‘활력’은 2.78로 낮은 수준
 - 연령별로 보면 젊은 사원의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직위나 직책이 높아질수록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

▶ 자료 : 일본 노동경제백서, 인력부족 하에서의 근무방식을 둘러싼 과제 분석(人手不足下での「働き方」をめぐる課題を分析～労働経済白書),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9.11

⑬ 일본, 스타트업과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 일본도 창업 생태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스타트업 지원체제가 강화되어 왔으며,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는 도쿄를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연계가 진행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소개
 - 도쿄는 핵심기술이 중심이 된 디바이스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제품화에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이 성장
 - ‘자사중심주의’를 탈피하려는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과 더불어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증가
- 일본에서 ‘14년경부터 현재에 이르는 제4차 벤처붐을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는 스타트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 지금까지 자체적인 기술개발이나 계열을 중시한 R&D에 주력했던 대기업은 급속한 기술진화,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자 외부와의 협력을 진행
 - 또한 신규사업 창출을 위해 내부유보나 R&D예산을 활용해 사업시너지를 목표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협업을 시작하는 한편 속속 CVC를 설립
 - 스타트업 측도 대기업의 출자를 받아 신용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쌍방의 니즈가 일치
-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일본의 창업 생태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이 탄생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측면이 존재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나부터 시작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은 ‘혁신적인 가치창조에는 기업에서 파생한 CVC설립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신설 같은 방법론뿐만 아니라 자발적 동기나 공감, 다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생태계에 국제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성공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신속한 성장을 지향하는 ‘본 글로벌 기업(Born Global Company)’
 - 본 글로벌 기업이란 ‘창업 후 곧바로 수출, 기술공여, 현지생산, R&D같은 국제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해 기존의 국제화 과정으로는 축적할 수 없었던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갖는 기업’

▶ 자료 : 세계 각국 창업 생태계와 비교한 일본의 장단점 분석(日本の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は形成されたのか-主要国と比較した日本の強みと弱み), JETRO, 2019.10

④ 품질4.0(Quality4.0) 추진, 미래 공장에서의 중요성 불구하고 아직은 초기 단계

- 보스톤 컨설팅그룹(BCG)은 ‘19년 2월과 3월에 품질4.0(Quality 4.0) 이니셔티브의 현재 상태 및 향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
 - 설문 조사 참가자는 소비재, 산업재, 의료 기술 및 제약과 같은 주요 부문의 18개 산업을 대표하는 221개 회사의 경영진과 품질 관리자로 구성
- 품질4.0(Quality 4.0)은 인더스트리4.0(Industry 4.0)의 디지털 기술을 품질관리에 적용하는 것으로 미래의 공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실시간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분석 지원 예측 유지 관리 등 많은 이점을 보유
 - 응답자들은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4.0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 및 R&D 부문이 품질향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 설문 조사 참여자들은 품질4.0이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중 소수만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
 - 응답자 중 품질4.0 추진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실행 중 16%, 계획 중 20%로 조사
 - 지역별로 보면 유럽(주로 독일) 기업 중 품질4.0을 실행하고 있는 비중은 21%로 미국의 6%를 크게 상회
- 품질4.0 실행의 가장 중요한 장벽은 디지털 기술 및 역량 부족으로 조사
 - 그 외 디지털 전략의 부재, 품질 문화 부재, 낡은 시스템/인프라, 품질 데이터의 분산, 자금 부족, 조직의 반대, 고위 경영층의 지원 결여, 데이터 통합 및 품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 등의 순
- 품질4.0을 구현하려면 기업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 사례의 우선 순위 지정, 명확한 비전 및 로드맵 정의, 기술 및 데이터 능력 구축 및 기술 격차 해소 등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

▶ 자료 : 품질4.0(Quality 4.0)의 의미와 추진 현황(Quality 4.0 Takes More Than Technology), BCG, 2019.9

III

주요일정



① Hustle Con (미국 캘리포니아, 2019.12.2.~3.)



- 본 컨퍼런스는 실리콘 밸리 내 주요 창립자 및 전문가의 △기업가 정신의 교훈, △성공적인 회사 설립 및 인수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등을 주제로 한 기조 연설과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
- 연락처 : events@hustlecon.com
- URL : <https://hustlecon.com/>

② Growth Marketing Conference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9.12.10.~11.)



- 본 컨퍼런스는 크게 △개인의 학습(Acquisition, Activation & Retention), △기업 성장(B2B & Enterprise Growth), △마케팅 전략(Organic & Performance Marketing)의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며, 마케팅·고객의 심리·최신 기술 등에 관한 기조연설, 강연, 워크샵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URL : <https://growthmarketingconf.com/>

③ FORTUNE MPW Next Gen 2019 (Laguna Niguel, CA, 2019.12.10.~11.)



- 본 컨퍼런스는 여성의 비즈니스 생활의 지원 및 개인 성장의 촉진을 목표로 하며, 강연을 통해 신생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연락처 : MPWNextGen@fortune.com
- URL : <https://fortuneconferences.com/>

④ Disrupt Berlin 2019 (독일 베를린, 2019.12.11.~12.)



- o 본 컨퍼런스는 기조연설, 강연, 워크샵을 통해 스타트업 관계자 및 개발자에게 스타트업 관련 최신 기술과 동향을 소개하고, 최신 통계·플랫폼 이니셔티브 내 모범 사례 등을 공유
- o 연락처 : events@techcrunch.com
- o URL : <https://techcrunch.com/events/disrupt-berlin-2019/>

⑤ SME WORLD FORUM MACAO 2019 (중국 Macao, 2019.12.11.~14.)



- o 중국 정부의 이니셔티브(GBA) 지역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의성과 혁신의 주요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어, GBA 지역인 마카오에서 SME 월드 포럼을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공유
- o 연락처 : info@icsb.org
- o URL : <https://smeworldforum.org/>

⑥ ICGSE 2019 (이탈리아 로마, 2019.12.12.~13.)



- o 본 컨퍼런스는 친환경 스타트업 및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경험과 연구 결과를 교환·공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채택된 실질적인 과제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 o URL : <https://waset.org/green-startups-and-entrepreneurship-conference-in-december-2019-in-rome>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발 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발행인 :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편집위원 : 전인우 부원장, 김광희·백필규·심우일 수석연구위원 등

주 소 : (0707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전 화 : 02-707-9800, 팩스 : 02-707-9894

홈페이지 : <http://www.kosbi.re.kr>

문의처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02-707-9873

인쇄처 :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02-2279-9241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